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 04 / 도산서원

위성사진 / 평면도 / 단면도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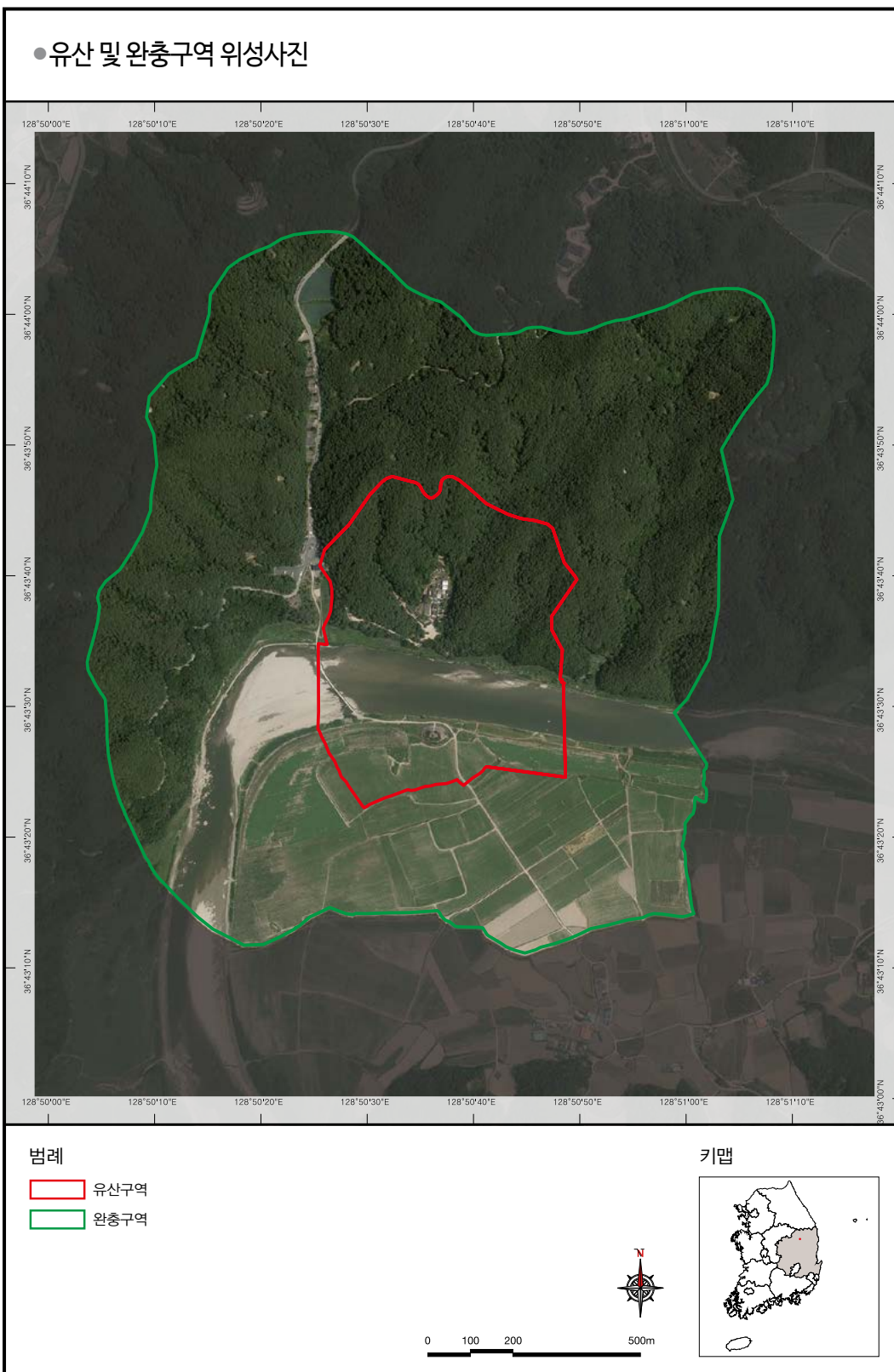
건축물

제향공간 / 강학공간 / 교류영역 및 유식공간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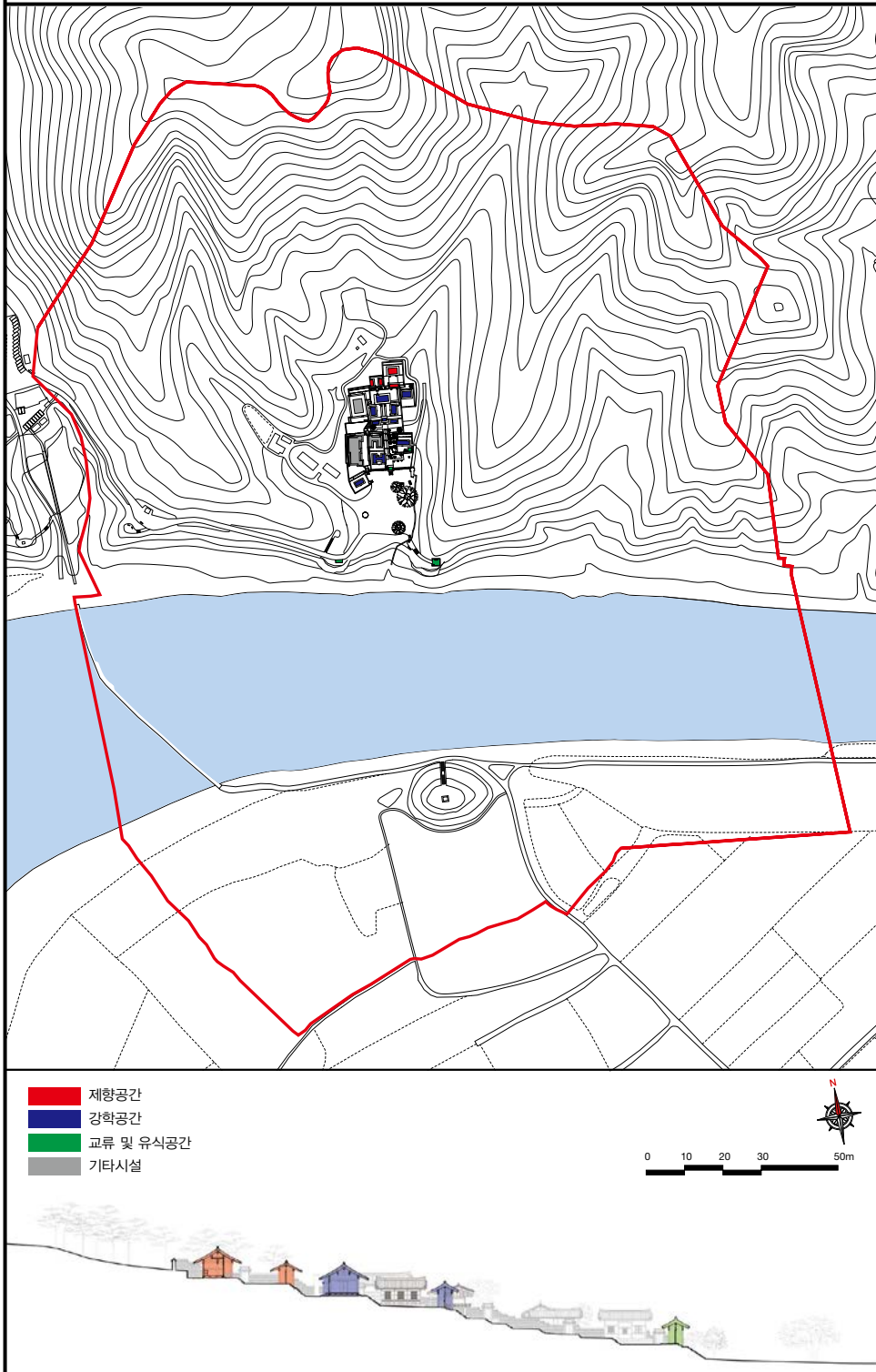
기록유산, 무형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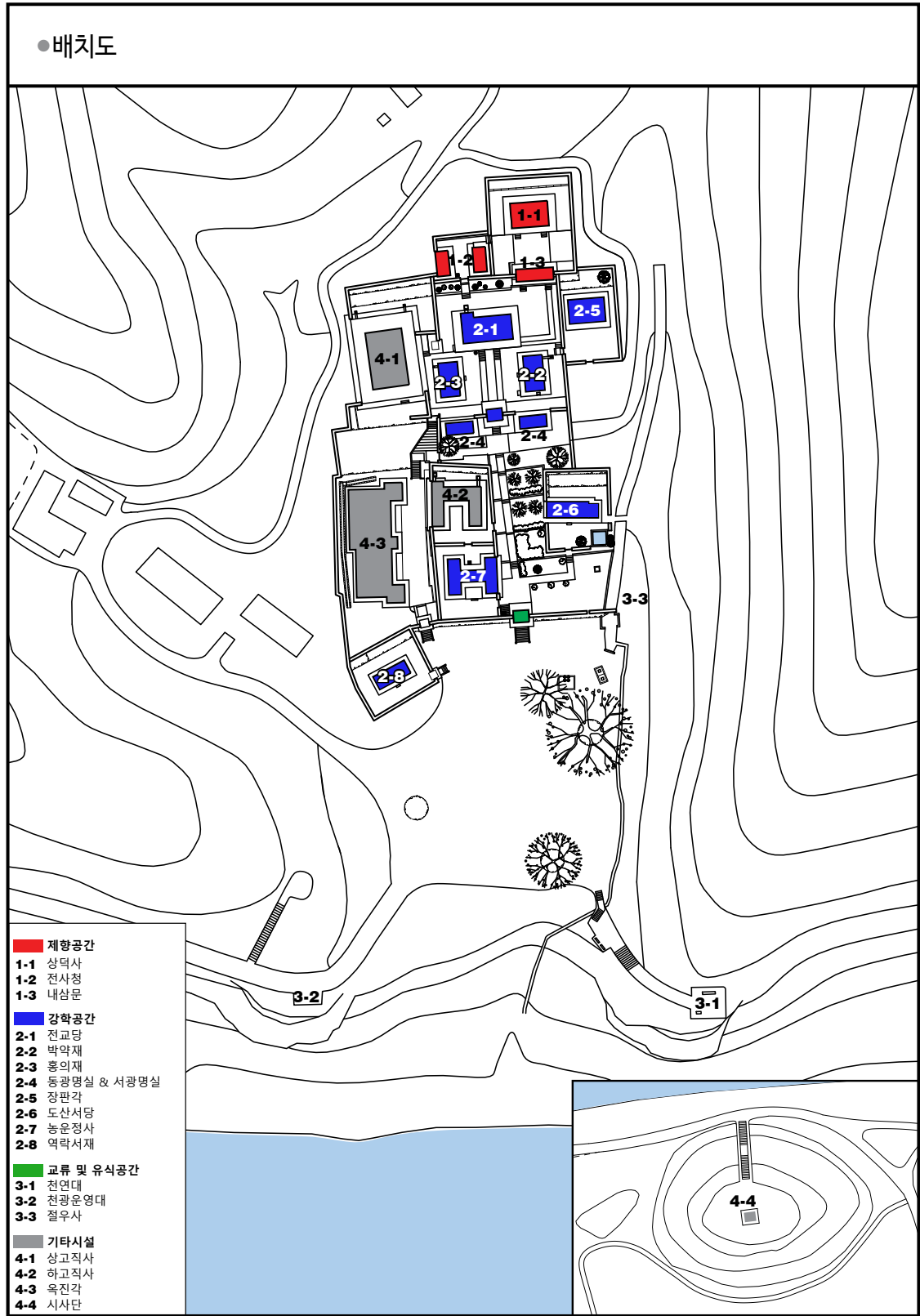
고문서 / 책 및 책판 / 현판 및 기문 / 제향의례

### 4. 도산서원



● 평면도 및 단면도





## 1) 건축물

### 제향공간



1-1

1-2

1-3

#### 상덕사(1-1)

보물 제211호. 제향인물인 퇴계 이항과 월천 조목의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정기, 비정기 제향의례가 시행되고 있다. 상덕사는 1574년(선조 7)에 건립되었고, 지금의 건물은 1969년 수리한 것이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앞면에 측면 칸을 절반으로 나눈 반 칸 규모의 툃간을 만들어 놓았다. 기단은 화강암을 다듬어 4단으로 화려하게 쌓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네모기둥에 공포를 두지 않은 간결한 형식의 부연(附椽)이 없는 홀처마로 검소하게 지은 조선시대 전형적인 건축물이다.

#### 전사청(1-2)

제향과 관련된 제기가 보관되어 있으며, 제향준비를 위한 건물이다. 음식의 재료를 날라오는 고직사와 사당 사이에 위치한다. 2칸으로 된 각각의 건물이 동·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동쪽을 주청으로 하고 서쪽에는 제기고를 마련해두었다. 제기고(祭器庫)는 전사청의 서쪽 건물로 제기(祭器)를 보관하는 곳이다. 문이 달린 마루칸과 전돌이 깔려 있는 봉당은 제수(祭需)와 제기를 옮기기 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산서원 이후부터 사우와 전사청의 공간구분이 이루어졌다.

#### 내삼문(1-3)

사우의 진입문으로 상덕사와 같은 시기에 지어졌다. 계단 때문에 문 안쪽과 높낮이의 차이가 생겨 전면 기둥을 1단 낮은 자리에 세웠다. 이러한 이유로 기단 아래까지 기둥이 내려오는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 강학공간



2-1

2-2

2-3

### 강당 : 전교당(2-1)

보물 제210호. 서원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이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건물이며 원장실과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부를 높여 위엄을 살렸고 양쪽에 계단을 설치하였다. 성리학자들이 기피하는 짝수칸의 구성이 특이하며, 서쪽 1칸만 온돌방이어서 비대칭을 이루고 있다. 온돌방은 원장의 거실로 명칭은 한존재(閑存齋)이다. 대청 전면 3칸은 문짝을 달지 않고 개방하였으나, 측면과 뒷면에는 각 칸마다 2짝의 여닫이 창호를 달았다. 현재 모습은 1574년(선조 7) 처음 지은 것을 1969년 보수한 것이다. 전교당 정면의 현판은 조선 중기의 명필 한석봉(韓石峰)의 글씨로 1575년(선조 8) 선조로부터 사액(賜額)받은 것이다. 강당 벽면에는 원규(院規), 백록동규(白鹿洞規), 정조의 사제문(賜祭文), 국기안(國忌案), 사물잠(四勿箴), 속흥야매잠(夙興夜寐箴) 등의 현판이 걸려있다.

### 재사 : 박약재(2-2), 홍의재(2-3)

전교당의 좌우에 위치하여 박약재는 동재, 홍의재는 서재에 해당한다. 이 건물들에서 학생들은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하였다. 학생들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사가 점차 확대 건립되었다.

박약博約은 ‘학문을 넓게 배워 예로 행하라[博學於文 約之以禮]’는 뜻이고 홍의(弘毅)는 ‘선비는 마음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그 책임은 무겁고 도학의 길은 멀기 때문이다[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라는 뜻이다.

홍의재(弘毅齋)는 동재인 박약재와 마찬가지로 원생의 기숙소이다. 강당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에 위치하며, 서쪽에 자리하고 있어 서재(西齋)라고도 한다. 동재에 기숙하는 원생이 서재의 원생보다 선배이지만 두 건물은 규모나 장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동재와 서재 모두 3칸 집으로 전면의 반 칸을 내어 쪽마루를 달았다.

## 강학공간



2-4

2-5

2-6

2-7

2-8

### 도서관 : 동광명실 & 서광명실(2-4)

광명실은 서책을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는 오늘날의 도서관(藏書庫)인데 현판은 퇴계선생 친필이다. 진도문을 가운데 두고 동·서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습해(濕害)를 방지하기 위해 누각식(樓閣式)으로 지었다. 1819년(순조 19)에 세워진 동광명실에는 역대 왕의 내사서적(內賜書籍)과 퇴계 선생이 친히 보시던 수택본(手澤本)을 보관하였다. 원래는 동광명실만 있었으며 서광명실은 1930년에 동광명실을 본 따 지었으며 이 역시 2층 구조의 누각 건물로 서원의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문도를 비롯한 국내 유학자의 문집 등 근래에 발간된 각종 책들이 있다. 이곳에는 일본 유학자인 손시교쿠수이[村土玉水]가 편찬한 '퇴계서초(退溪書抄)'가 있어 퇴계학이 일본 유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 보관된 장서는 현재 보존관리를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되어 있다.

### 도서관 : 장판각(2-5)

전교당 동편에 위치한 서원의 출판소로 책판(冊版)을 보관하는 곳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건물이다. 벽체 사방을 모두 나무 판벽으로 만들고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아 습기 방지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바닥도 지면에서 띄우고 전면 위쪽으로는 살창을 내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하였다. 퇴계의 문집, 유묵, 언행록, 도산십이곡, 선조어필, 병서(屏書) 등 2,790여 장의 판각(板刻)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체계적인 분류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광명실 서책과 함께 2003년 4월에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

### 배향자 관련 : 도산서당(2-6)

퇴계 이황이 거처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으로 1561년(명종 16)에 설립되었다. 서원 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이황이 직접 설계하였다고 전해진다. 서당은 일(一)자 형태의 단정한 3칸 건물로 부엌, 온돌방, 마루로 되어 있다. 여기에 부엌 반 칸, 마루 1칸을 더 달아내었고, 건물 3면에 퇴를 놓아낸 점이 특이하다. 덧지붕을 달고 마루를 연장하였으며, 방은 완락재(玩樂齋), 마루는 암서헌(巖栖軒)이라고 이름 붙였다.

### 배향자 관련 : 농운정사(2-7), 역락서재(2-8)

농운정사는 서당 제자들의 기숙사로, 서당의 서쪽에 위치한다. 퇴계선생이 직접 기본 설계를 하고 당시 용수사(龍壽寺) 승려였던 법련과 정일을 임명하여 건립하였다고 한다.

역락서재는 도산서당과 같은 시기에 건립된 건물이다. 서원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담장이 둘러져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다. 서당의 제자들을 위한 기숙사로, 퇴계의 제자 정사성(鄭士誠)을 비롯한 뜻있는 제자들이 힘을 합쳐 세웠다. 온돌방의 서쪽 반 칸을 비워 아궁이를 설치한 점이 특이하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단정한 건물로 현판 글씨는 퇴계선생의 친필이다.



## 교류영역 및 유식공간



3-1

3-2

3-3

### 천연대(3-1), 천광운영대(3-2)

서원 전면의 낙동강을 조망하는 곳에 조성된 곳으로 서원의 교류와 유식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 절우사(3-3)

이황이 매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를 심고 감상하며 성리학의 원리를 터득한 곳이다.

## 기 타



4-1

4-2

4-3

4-4

**상고직사(4-1), 하고직사(4-2)**

조선시대 서원의 보존관리와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서당 영역에서의 고직사와 구분하기 위해 서원의 고직사를 상고직사라고 한다. 상고직사 지금의 건물은 1932년 옮겨지은 것으로, 원래는 6칸의 ‘ㄷ’ 자 건물이었는데 이건(移建)하면서 동서 날개부가 1칸씩 증축되었다. 처음에는 서당과 같은 공간에 있었으나 서원 건립으로 진입로가 놓인 까닭에 농운정사와 함께 서당에서 분리된 모습이 되었다.

**옥진각(4-3)**

도산서원은 1969년부터 정부의 고적보존정책에 따라 성역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대대적인 보수를 하였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옥진각은 퇴계선생의 유물전시관으로 1970년에 완공되었다. ‘옥진’은 ‘集大成 金聲玉振’을 줄인 말로 ‘집대성했다는 것은 금소리에 옥소리를 떨친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옥진각에는 퇴계 선생이 생전에 쓰던 베개와 자리를 비롯한 많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또 매화 벚루, 옥서진, 서계 등의 문방구에서는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였던 선생의 손길이 느껴진다. 이외에도 청려장(靑藜杖), 매화등, 투호(投壺) 등과 함께 혼천의(渾天儀)도 전시되어 있다.

**시사단(4-4)**

1792년(정조 16) 도산서원에서 시행된 과거시험을 기념하기 위해 1796년(정조 20) 단을 쌓고 비와 비각을 세웠다.

## 2) 기록유산·무형유산

### | 고문서, 고서, 책판 |



#### 유원록 遊院錄

▪ 연대 : 1576~1772년   ▪ 크기 : 37.5×26.5

1576년(선조 9)부터 약 200년 간 도산서원에 입학하여 공부한 학생들을 연도별로 적은 것으로 서원 건립초기의 입원생(入院生)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입원생의 신분(진사, 생원, 유학 등)과 성명, 자가 기재되어 있다. 원생 선발은 초기에는 정기적으로 선발하였으나, 1616년(광해군 8)에는 식년마다 입원(入院)한다고 명기(明記)하고 있다.



#### 전장기 傳掌記

▪ 연대 : 1596년~20세기초   ▪ 크기 : 37.5×26.5

1596년(선조 29)까지 미곡(米穀)을 비롯한 도산서원 소유 재물의 변화를 기록하여 인수인계한 문서이다. 1~2년을 단위로 작성된 이 기록은 1596년(선조 29)부터 20세기 초까지 모두 58책이 남아 있다.



####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 思悼世子 追尊 萬人疏

▪ 연대 : 1855년(철종 6)   ▪ 크기 : 111×9,650

1855(철종 6)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할 것을 청하는 만인소로 퇴계 이황의 후손인 이휘병을 소수(疏首)로 하여 모두 10,094명의 영남 사람이 참여하였다. 1800년(정조 24) 정조의 승하 이후 영남 남인들이 정치적 소외를 만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상소는, 비록 성사되지는 못하였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영남 사람들을 결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도산서원 일응치부 陶山書院 一應置簿

▪ 년대 : 1619년(광해군 11) ▪ 크기 : 38.5×26.5

도산서원의 재산내역을 분야별로 정리한 장부로 서원 소속 전답, 노비, 타관(他官)에 거주하는 노비, 양속(仰屬)서열, 사노(私奴), 양인, 장인(匠人)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에는 이들의 거주지, 신분, 직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 초창기의 도산서원의 경영 실태를 알려주고 있다.



### 병진 9월 13일 사제시일기 丙辰 九月 十三日 賜祭時日記

▪ 년대 : 1796년(정조 20) ▪ 크기 : 35×21

이항의 사손(嗣孫) 이지순(李志淳)이 영유현감(永柔縣監)으로 부임하던 중 이항의 위패를 가져가면서 겪은 일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다. 실록에는 정조가 서울에 당도한 퇴계의 위패를 예관(禮官)에 명하여 맞이하고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고 했는데, 일기에서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실록의 내용을 보완해 주고 있다.



### 사문수간 師門手簡

▪ 년대 : 1550~1570년 ▪ 크기 : 40.8×27.2

1550년(명조 5)부터 1570년(선조 3)까지 이항이 제자 조목(趙穆)에게 보낸 113통의 편지를 조목이 65세 때 엮은 간찰첩이다. 간혹 시문(詩文)도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이항의 필적, 한글 표기, 수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8책이었으나 현재 소장본은 권2에서 권8까지 7책이다.



### 노비안 奴婢案

▪ 년대 : 1700~1861년   ▪ 크기 : 33.5×24

각처에 거주하는 도산서원 소속 노비 462구를 기록한 장부로 성명-나이-거주지 순으로 기록하였다. 도산서원 노비안은 1700(숙종 26)년부터 1861년(철종 12)까지 모두 22책이 있으며, 1743년 이후에는 노비수의 증가로 소재지에 따라 15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였다.



### 서책치부 書冊置簿

▪ 년대 : 1775년(영조 51)   ▪ 크기 : 30×33

도산서원 동광명실의 건립 시기와 배경, 당시 서책의 상황 등을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로 총 2,030권의 서책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1775년(영조 51) 5월 이후 무신년 6월, 포쇄시 동광명실 건물과 서책의 보관 상태 등에 대해 기록한 내용도 보인다.



### 심원록 尋院錄

▪ 년대 : 1575년~20세기 초   ▪ 크기 : 36.5×26

\*시기와 내용 불일치

1575년(선조 8)부터 도산서원 방문인들을 기록한 것으로 예안현감 손영제(孫英濟)를 비롯하여 감사(監司) 윤근수(尹根壽) 등등의 성명을 적고 관직명, 자(字), 거주지를 적었다. 본현에 거주하는 인물들은 거주지 부분을 비워 놓았다. 도산서원 심원록은 창건시부터 20세기 초까지 모두 75책이 남아있다.

| 고서 및 책판 |



중용언해 中庸諺解

- 년대 : 1588년(선조 21)   ▪ 크기 : 36×23

도산서원의 사액 이후 나라에서 내린 책이다. 현재 남아있는 책을 보면 1588년(선조 21), 1590년(선조 23), 1793년(정조 17), 1798년(정조 22)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소학언해(小學諺解) 및 사서언해(四書諺解)는 임진왜란 직전에 금속활자인 을해자체경서자(乙亥字體經書字)로 간행된 책으로 국내에 현존본이 거의 없다.



근사록·문공가례의절·진서·연평답문

近思錄·文公家禮儀節·晉書·延平答問

- 년대 : 1519~1555년
- 크기 : 근사록 35.5×21.5 문공가례의절 32×19.7  
진 서 32.7×21.5 연평답문 31.2×18.7

구 역동서원의 초기 장서로 퇴계 이황이 역동서원으로 가져 온 책과 제자와 문인들이 보내온 책들 중 도산서원에 소장되었던 책들이다. 근사록은 1519년(중종 14) 구례의 봉성정사(鳳城精舍)에서 간행한 책으로 4책이 남아 있다. 문공가례의절은 1555년(명종 10) 청주에서 간행된 책으로 전책 4책 중 제3책이 결락된 상태로 도산서원에 남아 있다. 진서는 43책 완질본이 전해진다.

연평답문은 ‘연평이씨사제자답문(延平李氏師弟子答問)’이 원래 서명이며, 1554년(명종 9) 충주에서 간행된 책으로 앞표지 이면에 ‘용경4년 경오7월일 퇴계래(隆慶四年庚午七月日退溪來)’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 퇴계선생문집 책판 退溪先生文集 冊板

▪년대: 1600년(선조 33)   ▪크기: 54.2×21

도산서원 장판각에 소장된 퇴계선생문집 책판은 1600년(선조 33) 경자본 원집 709판을 비롯하여 갑신중간본 원집 1075판, 신·구판을 합쳐서 속집 150판, 별집 75판, 외집 37판, 언행록 202판, 연보 70판, 세계도 36판 등이 빠짐없이 남아있다.



### 도산십이곡 책판 陶山十二曲 冊板

▪년대: 17세기초   ▪크기: 43×66

퇴계 이황이 안동에 도산서당을 세우고 학문에 열중하면서 사물을 대할 때 일어나는 감흥과 수양의 경지를 읊은 12수의 연시조이다. 책판은 모두 3장이 남아 있는데, 1565년(명종 20) 3월 이황이 직접 지은 서문과 ‘도산육곡지일(陶山六曲之一)’, ‘도산육곡지이(陶山六曲之二)’이 각 판의 앞뒤로 판각되어 있다.



도산서원 陶山書院

▪ 년대 : 1575년(선조 8) ▪ 크기 : 57.5×206.3

1575년(선조 8) 도산서원이 사액을 받을 때의 편액으로, 이황이 생전에 진리를 강론하던 도산서당의 이름을 이어 받은 것이다. 글씨는 선조의 명에 의해 당대 명필인 한호(1543~1605)가 썼다.



도산서당 陶山書堂

▪ 년대 : 16세기 ▪ 크기 : 58.5×27.8

도산서당의 편액으로, '도산'의 명칭에는 성군인 순(舜) 임금과 동진의 도연명(陶淵明)의 인품을 흠모한 이황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황이 61세 때 도산서당을 창건하고 직접 글씨를 썼다. '산'자를 상형자로 구성하고, '서당' 두 글자에 예서에서나 볼 수 있는 파책[뺨침]을 가미한 점이 이채롭다.



농운정사 隴雲精舍

▪ 년대 : 16세기 ▪ 크기 : 58.0×28.0

도산서당 유생들이 기숙하던 정사의 편액으로, '농운'은 양(梁)나라 도홍경(陶弘景)의 7언 절구 시에서 인용한 것으로, 현실의 이욕(利欲)을 멀리하고 자연을 벗하며 학문에 침잠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퇴계의 친필이다.



상덕사 尙德祠

▪ 년대 : 17세기 말 ▪ 크기 : 70.0×169.5

도산서원 사우 편액으로, '상덕'은『논어(論語)』「헌문(憲問)」편에 나오는 말로 이황의 학덕을 숭상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글씨는 이일삼(李日三, 1626~1700)이 썼다고 전해진다.





### 전교당 典教堂

▪년대: 17세기 말   ▪크기: 76.1×208.8

도산서원 강당 편액으로, ‘전교’는 유가의 학문인 오륜을 가르쳐 밝힌다는 뜻이다.

글씨는 이일삼이 썼다고 전해진다.



### 사물잠 四勿箴

▪년대: 미상   ▪크기: 37×81

도산서원 정당(正堂) 오른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사물잠’은 북송 때 주돈이(周敦頤)의 제자 정이(程頤)가 눈, 귀, 말, 움직임 등 네 가지 기능에 대한 경계(警戒)를 논한 글이다.



### 백록동규 白鹿洞規

▪년대: 미상   ▪크기: 38×98

도산서원 정당(正堂) 오른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송나라 주희가 지은 중국 백록동서원의 학규이다. 오륜(五倫)과 위학지서(爲學之書),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 등 인간의 다섯 가지 도리와 학문에 임하는 바른 자세 등을 담고 있다.



### 원규 院規

▪년대: 미상   ▪크기: 55.5×145

이 원규는 퇴계 이황이 1559년(명종 14) ‘이산서원기(伊山書院記)’와 더불어 작성한 ‘이산원규(伊山院規)’이다. ‘이산원규’는 이후 영남지역 서원 원규의 모범이 되었는데, 유생들의 교과과정, 공부 방법, 서적 관리, 유생 형벌, 원임·유생의 선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정조 전교 正祖 傳教

▪ 년대 : 1792년(정조 16)   ▪ 크기 : 56×82

정조가 1792년(정조 16) 3월 3일에 규장각 각신 이만수(李晩秀)를 도산서원에 보내어 제문을 지어 치제(致祭)하고 특별히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전교(傳敎)이다.

퇴계선생연보(退溪先生年譜)에 의하면 시험 날 당일에 이 내용을 전교당에 새겨 걸었다.



### 박약재 博約齋

▪ 년대 : 17세기 말   ▪ 크기 : 53.5×141.5

도산서원 등재 편역으로, '박약'은 『논어(論語)』 「자한(子罕)」 편에서 인용한 말로 공부하는 유생들에게 지식을 널리 배우되 예로써 행동을 단속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글씨는 이일삼이 썼다고 전해진다.



### 홍의재 弘毅齋

▪ 년대 : 17세기 말   ▪ 크기 : 58.0×148.0

도산서원 서재 편역으로, '홍의'는 『논어(論語)』 「태백(泰伯)」 편에서 인용한 말로,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인(仁)을 실천할 수 없다고 강조한 말이다. 글씨는 이일삼이 썼다고 전해진다.

## | 제향의례 |

### 예를 갖추어 쌀을 아홉 번 씻는 도산서원(陶山書院)

경북 안동에 위치한 도산서원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이황이 제자들을 기르기 위해 1561년 건립한 도산서당의 유서를 이어 1572년 퇴계의 위패를 봉안하기로 결정하였다. 1575년에 서원이 낙성되어 사액을 받고 1576년 2월에 사우(상덕사)가 완공되어 위패를 봉안하였다. 성리학 강학의 전통과 학맥의 형성, 서원의례, 경관과 건축적 특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이다.

도산서원 춘추 향사의 특징은 제물을 준비할 때 ‘열정(冽井)’이라는 우물에서 큰 소리로 회수를 세며 쌀을 아홉 차례 씻는 ‘석미(浙米)’의식을 행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서원과 달리 분향할 때 향로를 제상 위에 올리며,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행하지 않는다.

### 제기 상태를 살피는 척기례(滌器禮)

도산서원에서는 관리인이 전사청의 제기를 깨끗하게 닦아서 고직사 아래에 두면, 재유사들이 알묘례 후에 고직사로 가서 제기의 숫자를 확인하고, 제기를 제대로 씻었는지를 살펴보는 의례를 행한다.

### 강당에서의 축문 작성

도산서원에서는 강당에서 집사 분정이 끝나면, 대축이 사당에 들어가서 축함을 받들고 나와 강당 중앙에서 축문을 쓴다. 축문 작성을 끝낸 후에 다시 사우에 봉안하러 갈 때 제관 모두 일어서서 축함을 향하여 읊을 한다.

### 쌀을 씻는 석미례(浙米禮)

도산서원에서는 제물용 쌀을 단지에 담아 열정 우물로 가서 물을 부어 흔들어 씻어 내는 석미례(浙米禮)를 행하는데, 씻는 것을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수를 아홉까지 센다. 지금은 열정 우물 근처의 수돗물로 대신한다. 제물용 쌀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제관들은 강당 앞뜰에서 동서향으로 열지어 읊을 한다.

### 향로와 향함을 제상위로 올리는 분향례(焚香禮)

도산서원에서는 향로를 제상에 올려놓고 향을 넣는 분향례를 한다. 다른 서원에서는 향상 위에 향로를 놓고 헌관이 향을 넣는 분향례를 한다.

### 사우 중문으로 들어가는 헌관과 술잔

도산서원에서는 헌관이 준소에서 술 따르는 것을 보고나서 중문으로 들어가 신위 앞에 나아가며, 작을 받은 봉작도 중문으로 들어간다. 다른 서원에서는 헌관은 동문으로 들어가 신위 앞에 나아가며, 작만 중문을 통해 전달된다.

###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 때 복향하는 헌관

도산서원에서는 준소의 술향아리에서 복주를 뜨고, 퇴계 선생 신위 앞에 진설된 조육을 칼로 베어내어 음복 준비를 한다. 초헌관은 사당 중문 앞에 마련된 음복위에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음복수조례를 한 다음 제자리로 돌아와 재배를 한다. 다른 서원에서는 헌관이 서쪽을 향해 꿇어앉아 음복수조례를 행한다.

###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원규(院規) 낭독

도산서원에서는 제공사가 끝나면 전교당 대청에서 헌관은 동쪽에서 서향으로 앉고, 나머지 집사들은 남북으로 나뉘어 앉는다. 재유사 가운데 한 사람이 헌관들 앞으로 나와서 절을 올리고 꿇어앉아 백록동서원 원규 등을 낭독한다. 이것이 끝나면 음복상을 받는다.